

부산광역시체육회와 함께하는

부산체육사랑카드

부산시체육회 지정 체육시설 10%, 월 최대 1만5천원 할인!
스포츠, 의료, 학원 등 생활 곳곳에서 할인 챙기세요!



카드 자세히 보기



필수 안내사항

-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절한 경우(연체금 보유, 신용점수 등 낮음)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 연체이자율: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최대 3%p, 법정최고금리(20%) 이내 (단, 연체발생 시점에 약정 금리가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 합니다.)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거래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금리
-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금리
- 그 외의 경우: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저금 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 *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 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또는 부산은행 고객센터 (1588-6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인기

2024. 03

Vol. 64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Vol. **64**
2024. 03

부산체육인
부산광역시게이트볼협회
양갑석 회장

부산체육 스타
부산광역시체육회 검도팀
서준배 감독

구군체육회를 가다
부산광역시기장군체육회

부인기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기록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2024. 03 Vol. 64



발행일 2024년 03월 15일
(월간, 비매품, 통권 제64호)
발행인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 장인하
편집인 신현기
편집·취재 정종욱, 문찬식, 김성무,
하나근, 김도희
발행처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T. 051-500-7900)
기획·제작 효민디앤피



인스타그램에서도 부산광역시체육회 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CONTENTS

B BUSAN HEROES

04 부산체육인
부산광역시게이트볼협회
양갑석 회장

08 부산체육 꿈나무
동주여자고등학교 농구부

12 부산체육 발자취
2015년 부산 체육계에는
어떤 일이?

16 부산체육 스타
부산광역시체육회 검토팀
서준배 감독

S SPORTS SERVICE

20 스포츠 기고
왔슨 할아버지

24 Sports is Busan
- 제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 결산
- 2024 부산광역시체육회장배
Beginner 클럽대항전
- 학교운동부 팀 창단 소식

28 스포츠 파노라마
생활스포츠 천국, 독일
'모두를 위한 스포츠'를 실현

32 구·군체육회를 가다
부산광역시기장군체육회

G GOOD LIFE

34 스포츠 라이프
스쿼시동호회 '드라이브'

38 스포츠 PLUS+
무한 질주, 무한 매력
자전거

42 라이프 업그레이드 [삶]
춘곤증 물리치는 제조

44 라이프 업그레이드 [몸]
성공을 이루는 숨은 잠재력의 과학
'히든 포텐셜'

S FOR SPORTS CITY

46 BSC 뉴스

50 회원단체 소식

54 센터 INFO
- 부산국민체육센터
- 북구국민체육센터
- 강서구국민체육센터
- 영도국민체육센터
- 부산실내빙상장

56 종목·공공스포츠클럽 소식



화합과 유대로 만들어가는 고령화 시대 스포츠 모델

게이트볼² Gateball³

부산광역시게이트볼협회 제2대 회장 양갑석

어르신들이 즐겨하는 스포츠인 '게이트볼'. 혹 누군가는 게이트볼을 그저 공을 치는 운동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까다로운 규칙 속 두뇌 플레이가 요구되는 매력적인 스포츠다. 누구보다 게이트볼의 매력에 흠뻑 빠져 운동을 즐기고 있는 양갑석 회장을 만나보았다.

일생, 부산생활체육인과 함께

매일 아침에 일어나 자전거를 탄 후 오후에 게이트볼을 즐긴다는 양갑석 회장. 활기찬 삶을 사는 양갑석 회장에게 그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건강한 에너지가 절로 느껴진다. 양 회장은 학창 시절 축구선수 생활을 했을 정도로 운동을 좋아했다. 졸업 후 군대를 다녀오고 회사에 취직해서 다니던 그에게, 생활체육과 뗄 수 없는 만남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1991년 국민생활체육 전국협회와 시도 협회가 탄생하면서 부산생활체육의 업무를 시작으로 50대에는 사무처장직을 맡아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해 구·군생활체육회, 종목별 연합회와 일생을 함께해온 셈이다.

“운영방침은 생활체육인의 건강 관리는 물론 누구나 원하는 운동을 할 수 있으며, 승부보다는 참여에 의의를 두는 방향으로 운영하였죠.”

긴 시간 동안 부산광역시생활체육회 사무처장으로 지낸 양갑석 회장, 그때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일까?

“2010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부산에서 유치해 대회를 치렀습니다. 당시 세심하고 면밀히 대회를 진행했는데, 전국 시도 선수단 모두 만족했다는 평가를 받아 성공적으로 마

무리 했습니다. 또한 국민생활체육 전국협회에서 각 시도별로 운영 전반에 걸친 능력을 평가하는데, 무려 3년간 최우수 단체로 선정되기도 한 것 역시 기억에 남습니다.”

양갑석 회장은 부산광역시생활체육회 사무처장으로서 산하 단체와 지도자들이 똘똘 뭉친 결과였다고며 뿌듯한 마음을 전했다.





여성, 부산게이트볼인들과 하나되다

부산시민들에게 다양한 생활체육환경을 제공했던 양갑석 회장은 2011년도 말 부산광역시생활체육회를 퇴직했다. 평소 운동을 좋아하던 그였기에 남은 시간은 스포츠를 즐기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가 퇴직 후 처음 접했던 스포츠는 다른 아닌 그라운드골프였다고.

“집이 수영구 쪽인데, 수영구그라운드골프협회에서 회장을 맡아달라더군요. 이제 막 그라운드골프를 시작해 운동도 잘 할 줄 모르는데, 주변의 적극적인 권유로 맡게 되었죠. 그런데 확실히 운동에 소질이 있는지 5개월 이후 그라운드골프 전국대회에 출전해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웃음)”

그러던 양갑석 회장이 그라운드골프가 아닌 게이트볼에 전념했던 이유는 다른 아닌 아내 덕분이었다.

“아내가 게이트볼과 그라운드골프를 쳤는데, 둘 중 게이트볼에 전념하겠다고더군요. 저도 아내를 따라 게이트볼만 치게 되었죠. (웃음)”

비록 아내의 선택을 따랐지만, 양갑석 회장은 게이트볼이 단순히 어르신들이 건강 관리 차원에서 하는 운동이 아니라 는 걸 느꼈다. 게이트볼을 배우는 과정에서 주장의 다양한 작전과 개인별 꾸준한 연습 그리고 빠른 두뇌활동이 동반되어야 하는 스포츠임을 깨달은 것.

“게임에서 이기거나, 대회에서 우승하면 그 쾌감은 무척 짜릿하죠. 또한 신체적 체력소모가 많지 않아 남녀노소는 물론 3대(손자까지)가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는 점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2016년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통합으로 부산광역시게이트볼협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한 그는 2021년 추대로 회장직을 맡아 오늘에 이르렀다. 부산광역시게이트볼협회를 중심으로 16개 구·군협회와 산하 80여 개 클럽 1,000여 명의 협회원들이 각 지역에서 다양하게 활동하면서 소통과 화합을 이루어가고 있다.



“체계가 잘 잡혀있어 협회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줍니다. 무슨 대회를 한다면, 시간을 어기는 사람이 없고 대회 참가자 중 항상 먼저 와서 대기할 정도죠.”

회원들 간 화합과 유대감도 높아 항상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며 양갑석 회장은 자랑을 아끼지 않았다.

평생, 게이트볼을 즐기도록

올해 부산광역시게이트볼협회에서 계획 중인 행사는 시험 회장배를 비롯해 시장기대회, 어르신대회, 대통령기대회 그리고 심판 연수, 심판 자격시험 등 그 수만 20여 개라고. 특히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부산광역시장배 슈퍼컵대회는 부산게이트볼인들 간 교류의 장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협회원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대회로 꼽히고 있다. 양갑석 회장은 이처럼 많은 대회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지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게이트볼이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될 때만 하더라도 전천후(비·바람 관계없이 운동할 수 있는 지붕이 갖춰진) 구장이 없었어요. 당시 국고로 각 시도에 지급되어 지자체 지원금

과 합쳐 전국 15개 시도에 전천후 구장을 갖췄는데, 부산은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국고를 반납했습니다.”

현재 부산의 게이트볼 전용 구장인 삼락강변구장은 여름에 홍수가 나면 모래가 쌓여 몇 달 동안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올해 성토하고 바닥을 인조 잔디로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되는데,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각종대회는 물론 임원 친선대회, 심판 대회, 타 지역팀도 초청해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산게이트볼인들이 기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강화훈련 등 체계적인 방법으로 지도할 예정입니다.”

양갑석 회장은 남은 임기 동안 부산게이트볼인들이 평생 게이트볼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반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며, 마지막으로 협회 식구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게이트볼 저변확대를 위해서 신입 회원들을 영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입 회원들이 지속해서 게이트볼을 즐길 수 있도록 기존 회원들이 좋은 길잡이가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엇보다 건전한 생활과 풍요로운 삶에 게이트볼로, 협회원 서로가 동반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섬세한 손기술과 팀워크의 환상적인 매치 동주여자고등학교 농구부



속공과 몸싸움, 섬세한 손기술과 팀워크가 공존하는 농구.

선수 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어떤 전술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경기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는 매력적인 스포츠다.

농구라는 꿈을 향해 땀 흘리며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는 동주여자고등학교 농구부를 만나보았다.

58년의 명맥을 잇는 서로를 향한 신뢰

1966년에 설립된 동주여자고등학교 농구부는 제72회 전국 남녀종별 농구선수권대회 1위, 2023 중고 농구 주말리그대회 왕중왕전 3위를 차지하는 등 농구를 향한 열정이 가득한 선수들이 모여 있다. 또한 부산과 경남 지역을 대표하는 여자 고교 농구팀으로 부산 BNK 썸의 사령탑인 박정은과 수석코치인 변연하, 안혜지(부산 BNK 썸) 등 한국 여자농구를 대표하는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배출된 곳이기도 하다.

이진희 지도자는 동주여자중학교에서 11년 동안 지도자 활동을 하다가 2021년에 동주여자고등학교로 부임하였다. 올해 졸업생들은 동주여자중학교에서 함께 올라온 선수들이라 2023년도는 지도자에게도 애뜻한 한 해였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당시 저와 선수들 모두 마지막으로 한번 잘 해보자는 마음으로 전력을 다해 경기를 치렀습니다. 결승에서 만난 상대팀은 강팀이었어요. 우리팀은 상대

와의 경기에서 6전 1승 5패를 기록했을 만큼, 대등한 경기를 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승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고, 최상의 역량을 발휘해서,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친 것 같습니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동주여자고등학교는 은메달을 거머쥐는 쾌거를 이루었다. 3점 차로 아슬아슬한 패였지만, 대등한 경기력을 펼치며 거머쥔 결과였다. 고등학교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는 졸업생들의 투지와 지도자에 대한 오랜 신뢰가 팀워크로 발현된 순간이기도 했다.

다양한 경기 경험과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통한 훈련

“2022년도에 팀에 선수 부상이 많았는데, 작년부터 기량을 올린 선수들이 올해 고3이 되어 팀 전력이 많이 단단해졌습니다. 앞으로 훈련을 통해 부상을 방지하고 선수 개인의 강점을 더욱 끌어올리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스토브리그는 시·도에서 주체하는 연습 경기로, 학교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모든 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덕분에 연습 경기를 통해 경기 경험을 쌓고, 게임 트레이닝을 하며 팀워크 및 주체적인 플레이를 훈련할 수 있다. 또한 선수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스포츠과학센터와 SSL센터의 도움을 받아 경기 시 선수들의 부상을 방지하고 몸 상태를 최선으로 끌어올리는 트레이닝을 하고 있다. 더불어 스포츠 멘탈 트레이닝으로 선수 개인의 성향에 맞는 목표를 세우고, 멘탈을 강화하여 경기 시 본인의 역량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있다.





학업과 운동, 유연한 진로 선택을 위한 노력

이진희 지도자는 착하고 배려심 깊은 선수들이, 농구를 하며 얻은 모든 경험이 미래에 좋은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 고민한다. 그와 선수들은 깊은 애정으로 맺어진 끈끈한 유대관계를 자랑한다.

“금메달을 따게 되면 이행해 달라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스

튜디오에서 저와 함께 단체 사진 찍기였는데요. 지금 이 순간을 특별하게 여기는 선수들의 모습이 참 기특했고, 그 때문에 경기 결과에 많이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쓰였습니다.”

이후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선수들과 함께 스튜디오 촬영을 했다는 이진희 지도자. 어린 선수들이 결과에 관한 아쉬움보다는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꿈꿨던 결과를 이뤄낸 성취감을 기억하길 바랐다.

이진희 지도자가 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바라는 것은 ‘부상을 입지 않고 오랫동안 농구인으로서 생활하는 것’이라고. 그렇기에 학업 참여를 우선하는 방침은 추후 선수의 다양한 진로 선택을 도와 앞으로의 인생에서 농구를 건강하게 즐기며 사는 방법이기도 하다.

“우리 선수들은 초·중학교 때부터 지도자 선생님들이 선수들을 잘 발굴해 주셔서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동주여자고등학교 선수들이 앞으로 어떤 진로를 건너더라도 주체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주여자고등학교 선수들의 한마디

질문① 나에게 농구란? / 질문② 농구만의 매력?



- ① 끝이 잡힐 듯 말 듯 한 '평행선'과 같습니다.
- ② 손끝과 팀워크, 개인 기술과 전술이 종합적인 섬세한 종목입니다.

- ①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발판 같은 '첫 디딤돌'입니다.
- ② 노력이 성과에 따라 나오기 때문에, 골대랑 공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정직한 매력이 있습니다.



- ① 하루를 잘 살아냈다는 만족감을 주는 '일상'입니다.
- ② 하나의 기술을 익혀도 또 다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늘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Mini Interview

제가 동주여자고등학교에 부임한 지 35년 차가 되었는데, 당시 농구부가 맹활약을 하였고 저 또한 전국대회, 아시아 청소년대표팀 단장으로 참여할 만큼 현재까지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고(故)정종섭 설립자께서 부산농구협회 회장까지 하실 정도로 농구에 애착이 있으셨습니다. 그런 베이스로 전폭적인 지원과 꾸준한 노력으로 1966년에 창단한 동주여자고등학교 농구부는 2005년도 대통령기농구대회에서 우승을 하였습니다. 또한 김화순 선수, 강아정 선수 등 동주여자고등학교 선배들이 길을 잘 닦아 주었습니다. 현재는 농구부 학생들이 강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분위기와 진로탄력성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성지 교장 선생님

2015년 부산 체육계에는 어떤 일이?

글. 원성만



부산광역시체육회는 2015년을 '부산체육의 르네상스 시대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체육진흥 및 국제대회 성공 개최로 스포츠 도시 위상 제고를 정책 목표로 하여 다양한 체육 인프라 조성 및 확충, 생활체육·장애인체육 내실화, 전문체육 저변 확산 및 수준 향상, 2028 하계올림픽 유치 분위기 조성, 국내·국제 체육대회 개최 및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 프로 스포츠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한 해였다.

#전문체육 분야

2015년 10월 16일부터 2015년 10월 22일까지 강원도에서 열린 제 96회 전국체육대회에 우리 부산시 선수단은 총 47개 종목 1,571명(선수 1,188명, 임원 338명)이 참가하여 금 70, 은 52, 동 81개로 종합순위 7위의 성적을 거두었다.

앞서 2015년 2월 25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4일간 서울과 강원도, 인천, 울산, 전북에서 부산 개최한 제96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는 총 5개 종목에 213명(선수 166명, 임원 47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금 15, 은 7, 동 9개를 획득하여 종합 5위의 성적을 거두었다.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나라도 튼튼'이라는 모토로 제44회 전국소년체육대회(2015.5.30.~ 2015.6.2.)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렸다. 우리 시는 1,080명(선수 728명, 임원 352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금 15, 은 23, 동 40개 등 총 78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부산 'e스포츠 메카'로 급부상

실시간 전략 게임이나 1인칭 슈팅 게임, 경주 게임 같은 게임물을 매개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인 e스포츠(e-sports, 일렉트로닉 스포츠 electronic sports) 행사가 2015년 8월 15일,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열렸다.

'블레이드&소울(블소) 토너먼트 2015 KOREA 시즌2' 결승전이 펼쳐진 해운대 특설무대에는 1만여 명의 관중이 모여 성황을 이뤘고, 이 자리에서 서병수 전 부산시장은 '부산게임산업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지역 게임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후 2019년에 사단법인 부산 e-스포츠협회가 부산시체육회의 정식 종목 단체로 최종 승인됐다.



#실업팀 지원 통해 우수 선수 육성,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 두 마리 토끼 잡아

스포츠가 시민 생활에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서 부산시체육회는 지역 선수 육성과 부산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생활체육을 접할 수 있도록 실업팀을 적극 지원하고, 생활체육 육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부산 지역 기업체가 운영하는 실업팀은 부산은행 육상팀이 유일한 현실에서 부산시체육회는 기존 시체육회와 시청 소속 운동부 가운데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팀을 기업체에 우선적으로 창단하여 창단하는 방식으로 실업팀 창단에 힘을 쏟았다. 실업팀 창단은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한 토대를 조성하고 부산 출신 선수의 역외 유출 방지, 그리고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부산시체육회는 '실업팀 창단 및 경기력 향상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부산 이전 공기업과 지역 기업 등을 중심으로 서병수 부산시체육회장의 협조 서한문을 발송하고, 추진단(6명)을 구성하여 기업체 방문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체육회가 추진한 실업팀 창단 사업 첫 성과로 1월 28일에 (주)골든블루 남자 정구 실업팀이, 10월 15일에는 콜핑 여자씨름단이 창단되었다.

아래 표는 2015년 부산지역 실업팀 현황이다.



#각종 국제 경기대회 성공 개최로 국제 스포츠 도시 이름 떨쳐

국제 도로 사이클 대회인 ‘투르 드 코리아(Tour de Korea) 2015’가 6월 7일 부산 수영만 요트 경기장에서 열렸다. 부산은 ‘투르 드 코리아 2015’ 개막도시로서 첫 경주는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구미 낙동강 둔치까지 189.1km 구간에서 펼쳐졌다.

국제사이클연맹(UCI)에 등록된 엘리트 선수 13개국 20개 팀 120명의 선수들이 참가했으며,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는 부



산시가 주최한 ‘제7회 부산시민 자전거축전’이 함께 열렸다. 부산의 아름다운 자연과 활력 넘치는 도시의 모습을 세계에 소개하고 자전거 문화를 전파하는 최고의 스포츠 이벤트가 되었다. 투르 드 코리아 2015는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시작으로 8일간 구미, 무주, 여수, 강진, 군산, 대전을 거쳐 서울까지 전국 1,249km에 이르는 도로에서 레이스가 펼쳐졌다.

이외에도 ‘2015 부산오픈 국제 남자 챌린저 테니스대회’가 5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또 ‘2015년 부산오픈 국제휠체어테니스대회’가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스포원파크 테니스장에서 열렸으며, 2015 부산국제장대높이뛰기경기가 12개국 61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5월 22일, 23일 양일간 용두산공원 야외 특설경기장에서 열렸다. 우리나라 최연소 선수가 4.20m를 뛰어넘어 우승했다.

한·일 장애인 스포츠 교류의 일환으로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

린 소프트볼 대회에 참가하여 한·일간 스포츠 교류 발전을 도모하였다.

또한 핸드볼, 체조, 야구, 수영 등 다양한 종목에서 한·일간 청소년 국제 스포츠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여 엘리트 꿈나무 선수들의 국제대회 경험과 기량을 높이고, 우수 선수 발굴·육성과 스포츠를 통한 도시 간 우호 협력을 다졌다.

2028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을 위해서는 2015년 1월 1일부로 부산광역시청 체육진흥과 내에 ‘올림픽 유치팀’을 설치했다.

#생활체육 활성화

10월 3일과 4일에는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에서 ‘제26회 부산생활체육축전’이 열렸다. ‘제36회 부산시민의 날(10월 5일)’을 기념해 부산 생활체육 동호인과 시민 2만여 명이 참가한 축제 한마당으로 펼쳐졌다.

2015년 부산생활체육은 언제 어디서나 모두가 즐기는 생활체육으로 시민 참여율 60%달성, 실명 동호인 100만 명 등록을 목표로 힘차게 출발했다. “365일 활기찬 생활체육, 3대가 함께해요!”를 슬로건으로 하여 16개 구군 및 47개 종목별 대회 지원은 물론 6대 주요과제 52개 사업을 집중적으로 펼친 결과, 16개 구군 6,907개 클럽 421,311명이 생활체육 실명 동호인으로 등록했고 1,641,431명의 시민이 생활체육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참여율을 높였다.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5일간 강원도 일원에서 제3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개최됐다. 우리 시 선수단은 24개 종목에 423명(선수 309명, 임원·보호자 등 114명)이 참가하여 메달 167개(금 57, 은 59, 동 51)를 획득하여 종합 10위의 성적을 거뒀다.

제12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가 2월 9일부터 12일까지 강원도 일원에서 열렸다. 우리 시 선수단은 57명(선수 29명, 임원·보호자 등 28명)이 6개 전 종목에 출전하여 메달 6개(은 3, 동 3)를 획득하여 종합 5위의 성적을 거뒀으며, 모범선수단(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모범선수단상은 17개 시·도의 추천으로 장애인 동계스포츠에 기여한 공이 가장 큰 시·도에 수여한다. 동계스포츠 불모지 부산의 열악한 환경을 딛고 당초 목표했던 6위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성적을 거둔 쾌거였다.

#부산시체육회-생활체육회 통합추진위 발족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15년 3월 27일 공포)으로 부산시체육회와 시생활체육회 통합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가 12월 발족했다. 부산시 3명, 시체육회 4명, 시생활체육회 4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통합추진위는 2016년 1월까지 통합안과 정관을 만들어 양 단체 이사회의 승인과 대의원 총회 보고를 거쳐서 통합이사회 구성 및 2016년 2월 통합체육회 출범을 내용으로 하는 통합로드맵을 제시했다.



사진제공: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한결같이 검도의 길을 걷다

부산광역시체육회 검도팀 서준배 감독



2022년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남자팀 금메달,

2023년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여자팀 동메달 및 대통령기 전국선수권대회 우승,

2024년 전국검도왕대회 남자 개인전 우승 등

부산광역시체육회 검도팀의 최근 성과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검도팀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자 나아가고 있으며,

그 선봉에는 서준배 감독이 있다.

승승장구의 비결은 팀워크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우승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대회예요. 59년 만의 우승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대회 시스템이 갖춰진 이후 부산 최초 우승입니다.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값진 우승이었어요.”

검도 경력이 30년 가까이 되는 서준배 감독. 오랜 경력 만큼 수많은 대회에 참가했던 그가 평생 잊지 못할 대회로 제103회 전국체육대회를 꼽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좋은 조건, 갖춰진 환경에서 이룬 성과가 아니라 팀 해체까지 겪었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독과 선수가 뜻을 모아 얻은 결실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전국체육대회 우승은 부산광역시체육회 검도팀이 입지를 굳히는 데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승승장구하는 데 기폭제가 되었기에 의미가 남다른 수밖에 없다. 반면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아쉽게 예선 탈락했던 여자팀은 각고의 노력 끝에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 2023년에 열린 대통령기 전국선수권대회 등 전국 단위 모든 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쥐며 5관왕에 올랐다. 서준배 감독은 아마 이 기록은 깨기 어려울 거라며 뿌듯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얼마 전 대한검도회 주최 전국검도왕대회에서 부산광역시체육회 일반부 이상호 선수가 남자 개인전에서 우승, 부산 최초로 ‘검도왕’에 등극했다. 서준배 감독은 2020년부터 감독직을 맡아 올해 5년 차에 접어들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비결이 궁금해진다.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저희 팀 분위기가 좋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함께하고 싶어 하는 선수들도 있고요. 시합에서 졌다고 해서 꾸짖기보단 서로 격려해 주는 가족 같은 분위기가 힘이 되어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선수와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서준배 감독. 그는 감독직을 맡은 후, 단 한 번도 선수와 불화가 없었다고 한다.

손목치기의 대가(大家)

서준배 감독은 검도 선수로서도 이름을 떨쳤다. 중학교 1학년, 친구를 따라 조금 늦은 나이에 검도를 시작한 그는 처음부터 검도가 재미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실력이 좋은 편은 아니어서 시합에서 지는 일이 많았는데,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더 이상 지고 싶지 않다는 승부욕이 발동해 누가 시키지도 않은 개인 연습을 365일이면 365일 하루도 빠트리지 않았다. 그의 노력은 고등학교 3학년 때 꽃을 피웠고,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며 고등학교, 대학교 상비군에 뽑혔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기간 검도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중 두 손가락 안에 든다는 서준배 감독. 대통령기 검도대회 개인전 1, 2, 3등, 검도 7단 대회 우승, ‘2023 리야드 월드 컴뱃게임’ 남자부 3위 등 그의 이력도 부산광역시체육회 검도팀 못지않게 화려하다. 그중에서 작년 6월 검도 7단 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사람들에게서 정말 많은 축하를 받았다. 그도 그럴 것이 부산 출신



선수 우승은 처음인데다 부산이 이 대회에서 우승한 게 26년 만이기 때문이다. 11월에는 영광적인 순간도 있었다. 전 세계 격투기·무예 종목 국제종합경기대회인 '2023 리아드 월드컴벳게임'에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 출전 선수 중 최고령의 나이로 당당히 입상까지 한 것이다. 대회 때마다 득점을 올린 기술은 그의 주특기 손목치기였다. 검도에는 머리, 허리, 손목, 찌름 기술이 있는데 '손목치기' 하면 '서준배'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여기에 머리치기가 주특기였던 이상호 선수가 서준배 감독에게 전수 받은 손목치기로 검도왕이 되면서 다시 한번 그의 명성을 입증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모든 선수에게 손목치기 기술을 전파하는 건 아니다. 선수 각자의 신체 조건 등을 고려하여 선수마다 잘할 수 있는 기술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 지도한다. 그의 또 다른 특기는 체력을 바탕으로 한 '방어력'이다. 상대에게 점수를 쉽게 주지 않아 선수 시절부터 "서준배랑 시합하면 힘들다"는 말을 듣곤 했다.



“시간이 갈수록 제가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상대가 지칠 때까지 끝까지 가보려고 다짐해요. 연장전을 한 시간 동안 한 적도 있는데 체력 싸움에서 이겨 우승까지 한 것 같아요. 우리 선수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남들 할 때 하고 남들 쉴 때 하자'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다 해도 체력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참고로 검도는 5분 동안 2점을 먼저 얻은 선수가 승리하는데, 5분 동안 승부가 나지 않으면 연장전으로 가게 되고 연장전에서는 1점을 먼저 얻으면 승리한다.

함께하는 운동, 함께 만드는 행복

서준배 감독이 지금까지 선수로서 맹활약하는 데에는 2009년 부산광역시체육회 검도팀에 합류했을 당시 도재화 감독의 영향이 컸다.

“감독님께서서는 기본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운동 시작 전에 무조건 하라고요. 지금도 저를 만날 때마다 여러 가지를 파기보다 기본기를 꾸준히 하라는 말씀을 꼭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다. 선수들과 함께 호흡하고 운동하는 감독으로서의 그의 모습도 도재화 감독을 본받은 거라고 한다. 서준배 감독은 사제지간을 떠나 서로 배우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몸이 허락하는 한 끝까지 호구를 쓰고 선수들과 함께하는 지도 방식을 고수할 거라고 한다.

“중학생 때 일본에 훈련을 갔어요. 할아버지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걸어오시더니 호구를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지팡이도



없이 선수들을 다 받아주셨어요. '평생 검도'라는 말이 가슴 깊이 와닿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검도팀의 올해 목표는 전국체육대회 남자팀, 여자팀 동반 입상이다. 하여 일찍이 전국체육대회에 맞춰 세운 전략에 따라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서준배 감독은 한 번 더 검도 7단부 대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8단 취득에도 도전할 예정이다. 이처럼 감독과 선수로서의 목표를 밝힌 그는 체육인으로서의 바람도 전했다.

“모두의 행복을 위해 체육이 더욱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하잖아요.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것과 더불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운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 재능을 발견하고 체육인을 꿈꿀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재능 기부를 위해 발로 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왓슨 할아버지

In Loving Memory of
Watson Zdrodowski
"Gramps"
Forever in Our Hearts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사랑하는 왓슨 할아버지를 기리며



Summit on the Park는 Canton이라는 미국 미시간 주 작은 도시의 커뮤니티 센터이다. 한국에서는 구(區)의 체육센터 시설과 유사하다. 가까운 거리에 University of Michigan이 위치해 있고, 미국 자동차 산업의 상징이었던 Detroit 도시가 30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이다. Summit on the Park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듯 커뮤니티 센터는 공원을 둘러싸고 위치한다. 공원은 크고 작은 호수들, 축구장, 야구장, 공연장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곳으로 Canton이라는 도시에서 a must-go place[꼭 가야만 하는 장소]이다. 호수를 둘러싼 산책로에는 왓슨 할아버지 같은 시민들의 이야기가 담긴 벤치들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든다.



글. 권영범 교수

부산대학교 스포츠과학과
스포츠 경영 및 건강 관리 전공

학력 박사: 미시건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학/석사: 성균관대학교

경력

- 2021. 9 ~ 현재 부산대학교 스포츠과학부 교수
- 2013. 9 ~ 2021. 8 University of Michigan, The Center for Sport Marketing Research, 연구원 (선임: 2020.1-2021.8) 프로젝트 매니저
- 2010. 9 ~ 2013. 4 University of Michigan, Health Management Research Center, 데이터 분석가
- 2010. 2 ~ 2011. 2 University of Michigan, School of Kinesiology, 연구원

● **기부 프로그램**
Donation Program

지난 2월 기고문('#BloodBattle: 스포츠, 그리고 선한 영향력')에서 개인이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을 하는 동기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스포츠를 통해 우리 사회에(이번 연재에서는 지자체 중심)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 질문은 지자체의 관점에서 바뀌어 생각해볼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기부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University of Pennsylvania의 경제학과 교수인 Holger Sieg는 지역사회 기부의 장점에 관한 연구를 시행하고자 미국 Pittsburgh 도시에서 문화 및 환경 분야의 가장 큰 10개의 자선 단체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중 흥미로운 점은 기부자들 중 상당히 적은 사람들만(평균 3.7%) 익명을 원했다는 것이다.¹ 이는 기부자들 대부분은 자신의 이름이 공식적인 매체에서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Only a small fraction of the donors are listed as "anonymous," suggesting that donors want to be recognized in official publications.", Sieg & Zhang, 2012, p. 352).

1 Sieg, H., & Zhang, J. (2012). The effectiveness of private benefits in fundraising of local charitie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53(2), 349-374.

자체)에 일정 금액의 기부를 통해 정해진 기간 동안(보통 5~10년, 단체마다 상이) 기념 동판을 벤치에 새겨주고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지해준다. 비슷한 기부형식으로 농구대에 기부자(개인 및 단체)의 이름을 새기는 방식도 있다.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역 아래 온천천에 있는 농구코트 및 농구대에 기부자의 이름을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방식도 스포츠 시설을 통해 기부를 유도 및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기부는 스포츠 시설 및 장비에만 가능한 것일까? 지자체 산하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 자체에도 네이밍 스폰서십(corporate naming sponsorship)의 형식을 빌린 네이밍 도네이션(naming donation)으로 운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금정구는 현재 관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대상으로 '신나는 주말체육학교'(무료 체육프로그램)를 운영한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인라인 스케이팅, 볼링, 축구, 탁구, 피구 등 다양한 종목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기부자 개인 및 단체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붙인 '박지후 주말 축구 교실', '이삭 핫도그 피구 교실' 등의 네이밍 도네이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특히 아이들이 축구에 관심이 있는 가정은 아이들의 이름을 활용한 네이밍 도네이션으로 아이들의 관심도를 높이는 등 지자체의 체육 프로그램 마케팅 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지난 기고문에서 스포츠 상황에서의 기부 활동 동기 요인 중 하나인 팀 일체성(team identification) 즉, 개인이 어떠한 대상에 감정적으로 몰입(emotional attachment) 할 경우 그 대상을 자신과 일체화하는 감정을 갖는 상태에 이르며, 이 감정의 레벨이 올라갈 수록 대상이 되는 기관(예: 지자체)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예: 기부) 할 경향이 높아



● ●
기부
스튜어드십
Donation
Stewardship

진다(본 저자 연구 결과 참고).^{2,3}

Sieg 교수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기부자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공식적인 매체로 드러나는 것을 선호한다. 이를 기부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하나의 매체가 아닌 여러 매체에서 자신들의 기부 행동이 알려지는 것을 원할 것이다. 비영리 단체(개인 포함)가 아닌 영리 단체의 기부라면 마케팅 효과 극대화 창출을 위해 지자체는 이러한 점을 더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지자체는 기부자들이 원하는 점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이들을 어떻게 대우할지를 고려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기부자들의 니즈(needs)를 파악하고



이들을 관리하려면 적용해야 하는 개념 중 하나로 'Stewardship(스튜어드십)'이라는 용어가 있다. 스텐어드십에서 스텐어드(steward)는 집(ste)을 지키는 사람(ward)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다. 그래서 과거 스텐어드는 주인이 관리를 위임한 집과 토지를 관리하는 집사 또는 청지기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성(castle)의 식당에 음식과 음료를 가져오는 기사 하인의 의무를 포함하였다. 스텐어드의 책임은 결국 가정 전체의 기사, 서비스 및 관리 요구사항을 포함하도록 확장되었다. 현대에는 이르러 이러한 의미가 더욱 확장되면서 다른 사람의 자원을 돌보고 보호하는 책임을 의미하게 되었다.

기부 스텐어드십 분야의 저명학자인 Kathleen Kelly 교수(University of Florida)는 비영리 조직의 스텐어드십은 기부자의 기부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그들의 자산이나 자원을 충실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⁵ 관련 연구들은 스텐어드십 전략은 기부조직의 기부자 관계관리 활동으로 기부자의 기부활동을 지속 및 강화하는 요인이라 제안한다. 즉, 기부자가 기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일회적 기부가 아닌 다음의 기부까지 연결되는 총체적 장려 활동이라 이해할

Donor Stewardship:
How to Retain
Support Effectively



수 있다.^{4,5}

그렇다면 지자체의 기부 스텐어드십 전략으로 어떠한 것들을 구상해 볼 수 있을까?

복잡한 절차와 고려 대상들이 있지만 (지면 관계상) 이번 기고문에서는 Kelly 교수의 스텐어드십 전략을 기초로 한 스텐어드십 테크닉 4가지 를 서술하고자 한다.⁵

- 1. Process gifts quickly (받은 기부를 빠르게 처리하라):** 기부를 받으면 즉시 기부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하고 적시에 기부금(또는 다른 형태의 기부)을 실행하는 데 노력한다. 또한, 기부자에게 관련 영수증을 보내주는 것도 기부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부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데 도움을 준다.
- 2. Tell a story (스토리를 전달해 줘라):** 기부금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기부자에게 전달해 주는 것은 스포츠를 통해 지자체가 지원하는 특징인, 지역 사회 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준다. 기부자의 기부금이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보여줌으로써 기부자를 이야기의 영웅으로 만들어라.
- 3. Create giving societies (다른 기부자들과 사회적 집단을 형성하라):** 기부자들을 대상으로 독점 멤버십을 구축하라. 일정 금액을 기부하거나 연회비를 지불하는 기부자는 지자체의 기부회 및 행사에 초대하는 시스템이다. 지자체는 회원들을 통해 구형 무료 주차나 독점적인 홍보 물품과 같은 특별한 특전을 제공해야 한다.
- 4. Host stewardship events (스튜어드십 이벤트를 개최하라):** 스텐어드십 이벤트를 개최한다. 기부자에게 직접 감사를 표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부 조직의 일원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줄 수 있다. 그들의 감사에 초점을 맞추고 더 많은 기부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기부자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기부를 계속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 스포츠 활동을 통해 기부자들의 기부 활동을 이끌어 내는 것은 쉽지 않다. 어떠한 방식들로 기부금(또는 활동)을 사용할지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기부 활동을 유지해 나가며 다른 이들의 기부 활동을 이끌어 내는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서라도 스텐어드십을 만들어가는 방안은 누군가에게 기부활동을 장려하기 전에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2 Kwak, D. H., & Kwon, Y. (2016). Can an organization's philanthropic donations encourage consumers to give? The roles of gratitude and boundary conditions. *Journal of Consumer Behaviour*, 15(4), 348-358.
3 Kwon, Y., & Kwak, D. H. (2014). Revisiting the team identification-value-purchase relationship in the team-licensed merchandise consumption context: A multidimensional consumer value approach. *Sport Marketing Quarterly*, 23(2), 100-114.

4 Kelly, K. S. (1998). Learning the ROPES: A new theory weaves together the many strands of fund-raising activity. *CASE Currents*, 24(27-28), 30-31.
5 Kelly, K. S. (2001). Stewardship: The fifth step in the public relations process. In R. L. Heath (Ed.), *Handbook of Public Relations* (pp. 279-289).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부산 선수단 '종합 5위' 목표 달성

제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 결산

동계 스포츠 선수들이 꿈의 날개를 펼쳤던 제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가 지난 2월 25일에 일정을 끝맺었다. 부산 선수단은 '종합 5위'를 달성하며 다시 한번 동계 스포츠의 저력을 입증하였다.



부산, 17년 연속 종합 5위 달성

2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강원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진행되었던 제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가 선수들의 열정과 사람들의 성원 속에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에서는 8개 종목, 5개 중별, 961개 세부경기가 진행되었으며, 19개 시·도선수단 4,278명이 참가하여 대회를 빛냈다.

부산 선수단은 6개 종목(빙상, 스키, 바이애슬론, 아이스하키, 컬링, 산악)에 250명(선수 168명, 임원 82명)이 참가하였다.

대회 종합 순위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메달합계 287개(금 97, 은 94, 동 96), 총득점 1,461점으로 종합 우승을 차지하였고 서울특별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북도에 이어 부산은 총득점 443점으로 종합 순위 5위에 올랐다. 이로써 부산은 무려 17년 연속 전국동계체육대회 종합 순위 5위라는 기록을 달성하게 되었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는 의미 있는 기록들도 쏟아졌다. 빙상 종목에서 총 17건(쇼트트랙 11건, 스피드 6건)의 신기록을 달성하였으며, 크로스컨트리 종목에서는 3명의 선수가 5관왕에 등극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4관왕 10명, 3관왕 20명, 2관왕 73명이 나왔다.



스키 종목에서 눈부신 선전

부산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총 32개(금 8, 은 10, 동 14)의 메달을 획득하였는데, 그중 17개 메달(금 8, 은 3, 동 6)이 크로스컨트리에서 나왔다.

여자 일반부 이의진 선수와 여자 고등부 허부경 선수가 4개(클래식 5km, 프리 10km, 스프린트 1.2km, 복합) 부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자 일반부 정종원 선수가 2개의 은메달과 3개의 동메달을 획득하였다. 크로스컨트리 같은 경우 지난 전국체육대회에서도 12개의 메달을 획득한 바, 이번 대회에서 또 한 번 그 저력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스키팀 윤설호 감독은 광남초등학교 스키부가 대한체육회 학교 운동부 창단 지원사업에 선정돼 지원금을 받은 것이 부산 스키 선수들의 사기 진작과 장비 구입 및 훈련비 활용 등에 큰 도움이 되었고, 학교에서 체육회로 이어지는 학교·실업팀 체육 시스템이 메달을 수확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소감을 밝혔다.

여기에 스키알파인 강영서 선수가 4개의 은메달을 획득하였으며, 이 외에도 스노보드(은 1, 동 2), 산악(은 1), 빙상쇼트트랙(동 3), 빙상 피겨(동 2), 컬링(동 1) 등 다양한 종목에서 수상을 거두었다.

대회가 열리는 동안 폭설이 내리는 등 열악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한 선수들 덕분에 제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는 더욱 뜻깊게 마무리되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2024 부산광역시체육회장배 Beginner 클럽대항전

부산광역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2024 부산광역시체육회장배 Beginner 클럽대항전이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펼쳐진다.

이 대회는 기존 초보 동호인의 체육활동 참여 유도 및 1인 1스포츠 보급확대 등의 목적에서 가족(3대) 단위 동호인(클럽팀) 체육활동 참여 유도로 가족 구성원 1스포츠 보급으로 대회 목적을 변경해 진행한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스포츠 문화 조성으로 건강한 스포츠도시를 기대해본다.



대회개요

- 기간** 2024년 3월 ~ 11월
- 장소** 부산광역시 전역(종목별 경기장)
- 개최종목** 궁도, 배구, 파크골프, 볼링(공모를 통해 선정)
- 참가대상** 회원종목단체 소속 클럽(팀) 및 개인 동호인 가족단위(3대 가족) 구성원 클럽팀(초보 동호인 1인 포함)
※초보 동호인 - 미등록 및 등록 3년 미만의 동호인
- 주최/주관** 부산광역시체육회/해당 종목단체



2024
부산광역시체육회장배
Beginner 클럽대항전
새롭게 바뀝니다!

	기존	변경
사업목적	초보동호인의 체육활동 참여 유도 및 1인 1스포츠 보급확대 등	가족(3대) 단위 동호인(클럽팀) 체육활동 참여 유도로 가족 구성원 1스포츠 보급
운영방식	초보 동호인 클럽팀 토너먼트 운영 (1일차 예선, 2일차 본선)	가족단위 및 3대가 함께하는 생활체육대회 또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예)1일차 프로그램, 2일차 대회
참가자격	초보자 동호인 및 초보자 30% 이상 등록 클럽팀 참여 필수	가족(3대) 단위 구성원 클럽팀 참여 필수 (초보자 1인 이상 참여)

부산체육을 이끌 스포츠 꿈나무 팀 창단 소식



인구 감소로 인해 전국적으로 학교 운동부가 감소하는 추세인 가운데, 부산에서는 작년과 올해 여러 학교에서 '운동부 창단'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올해 1월 부산외국어대학교 하키부가, 2월에는 경성전자고등학교 펜싱부가 각각 창단되었다. 작년에는 2월 부산외국어대학교 검도부 창단을 시작으로 대동고등학교 펜싱부(3월), 동명공업고등학교 여자축구팀(9월), 동명대학교 남자축구부(12월) 창단 등 2년 동안 총 6곳에서 팀 창단이 이루어졌다.

특히 동명공업고등학교 여자축구팀은 부산광역시 유일의 전문체육 여자축구팀으로 앞으로 부산 여자축구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학교 운동부 창단이 지역 학교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원동력이 되어, 나아가 부산체육을 빛내는 초석이 되길 기대해 본다.



부산외대 하키부



부산외대 검도부



대동고 펜싱부



동명대 남자축구부



동명고 여자축구팀



경성전자공고 펜싱부



생활스포츠 천국, 독일

‘모두를 위한 스포츠’를 실현

경쟁에서의 승리를 강조하는 엘리트 체육과는 별개로, 거의 모든 나라들이 ‘생활체육의 대중화를 통한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 실현’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중 독일은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할 정도로 생활스포츠가 크게 활성화된 나라이다. 독일 스포츠클럽들이 저렴한 회비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성을 갖고 번창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저렴한 회비, 높은 재정 자립도

독일은 생활체육의 선진국으로 유명하다. 전국적으로 다양한 생활체육 시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9만 개가 넘는 스포츠클럽이 결성되어 있으며, 전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생활체육을 즐기고 있다. 이러한 스포츠클럽에 소속된 코치와 트레이너만 해도 6,752명(2017년 기준)에 달한다. 낮은 회비에도 불구하고 스포츠클럽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모든 스포츠클럽이 코치와 트레이너의 자격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코치와 트레이너들 중 60% 이상이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발급한 공인 자격증을 갖고 있다.

독일은 최대한 많은 수의 국민들이 스포츠클럽에 접근할 수 있도록 낮은 회비를 유지하고 있다. 이 회비는 물가가 올라도 잘 인상되지 않는다. 독일 스포츠클럽의 재정 자립도가 높고 회비가 저렴한 데는 스포츠클럽 회원 중 약 30%의 인원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스포츠클럽에서 고정적인 직위를 갖고 있지 않으며, 클럽 파티나 스포츠 이벤트가 열릴 때마다 시설의 유지 보수 등 다양한 봉사 활동에 참여한다.

스포츠클럽은 코치나 트레이너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훈련에 드는 경비나 여행 경비 등 소액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금전적인 지원이 동기부여를 할 만큼 큰 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들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봉사에 나서고 있다.



유소년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독일 스포츠클럽

[참고자료] <Sports clubs in Germany: More than just exercise>, 리서치게이트 보고서 <독일의 생활체육 육성정책과 스포츠클럽>,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 사무소



독일 스포츠클럽의 최고 인기 종목은 축구



축구의 압도적인 인기

독일의 스포츠클럽은 클럽 자체 시설을 갖고 있는 곳이 40.9%, 공공 스포츠 시설을 이용하는 곳이 63.5%이다. 절반가량의 스포츠클럽이 지방자치단체에 시설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시설 이용료뿐만 아니라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 터인데, 독일의 스포츠클럽 중 4분의 3 이상이 흑자 운영을 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운영을 잘 하고 있다. 독일 스포츠클럽 수익의 상당 부분은 회원비, 등록비와 각종 기업 및 사회단체의 기부에서 나온다고 한다.

독일 스포츠클럽 중 가장 많은 회원 수를 자랑하는 종목은 축구다. 독일축구협회에 따르면 약 7백만 명의 회원이 축구 스포츠클럽에 가입해 있다고 한다. 그 다음으로 회원 수가 많은 종목은 체조, 테니스, 사격 순이다. 최근엔 등산의 인기가 급증하여 사격 다음으로 많은 회원 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스포츠클럽

독일의 스포츠클럽은 '단순히 운동하는 곳'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국민들의 다양한 사회적 교류 활동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에서 열리는 각종 축제, 축하 행사, 이벤트 등의 93%에 스포츠클럽들이 관여하고 있으며 스포츠클럽 중 62.5%가 회원들의 사회적 만남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체육활동에 기여하는 바도 크다. 스포츠클럽의 75% 이상이 유소년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에 관여하고 있으며, 50% 이상이 고령자, 여성 등의 스포츠 활동을 돕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라도, 많은 나라의 스포츠계에서 과도한 경쟁, 선수들 간 폭력, 불법약물 복용(도핑), 지도자나 상급 선수에 의한 성폭력 등의 어두운 그림자가 종종 드러나곤 한다. 독일의 스포츠클럽은 유소년들이 이러한 스포츠계의 어두운 부분에 영향을 입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공정한 경쟁을 통한 엘리트 체육인 육성에 부단한 노력을 쏟고 있다.

또한 1970년 이후 스포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욕구가 변화함에 따라 '트림 캠페인(Trimm-Aktion)'이 벌어졌는데, 이는 경쟁을 강조하던 종래의 스포츠클럽의 성격을 바꾸어 '모두를 위한 스포츠'라는 원칙을 수립하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원칙하에 경쟁 및 성취 지향적 스포츠 프로그램을 뛰어넘어, 놀이와 재미, 건강, 공동체의 친밀한 교류 등 비경쟁 성격의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은 이민자까지 포함해 스포츠 소외계층으로 남아 있던 많은 사람들의 스포츠클럽 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자체의 든든한 후원

독일의 스포츠클럽은 7명 이상의 회원이 구성되면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2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문제가 없으면 등록 허가를 받는다. 이렇게 법적 지위를 확보한 스포츠클럽은 자동적으로 시(市) 스포츠협회, 주 스포츠협회, 종목별 협회, 독일스포츠협회에 등록된다.

정식 등록된 클럽은 공익클럽 마크를 부여해 사적 스포츠클럽과 구별해 우대 지원을 해준다. 연방정부는 공공체육시설 건립과 소외계층 스포츠 활동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지방정부는 스포츠 장비 지원, 스포츠클럽 운영 및 자원봉사 지원, 교육 지원, 스포츠클럽 청소년 지원, 시 소유 임대 스포츠 시설 관리비 지원 등으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다.

지방 스포츠협회는 등록 클럽에 대하여 스포츠 시설 대관, 스포츠시설 사용권 관리, 대회 정보 제공, 후원금 공제 및 세금 감면, 보험 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같은 지자체의 여러 지원 정책은 독일 스포츠클럽의 성공 요인 중 하나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요인은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라는 인식의 대전환과 국민(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아닐까. 오랜 전통에 기반한 자원봉사 문화와 비경쟁적 프로그램의 적극 도입은 독일 스포츠클럽의 성장과 스포츠 참여 인구의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했으며 스포츠클럽의 재정적 자립도와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도 이바지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쟁과 올림픽 메달 수에 집착하는 엘리트 체육에서 벗어나, 보다 많은 국민들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건강과 삶의 즐거움을 누려야 한다는 인식의 대전환이 일어난다면 독일과 같은 생활스포츠 대중화도 가능할 것이라 본다.



독일 스포츠클럽 트레이너의 상당수는 자원봉사자들이다.

부산 체육
인프라의 중심

부산광역시기장군체육회



월드컵빌리지 축구장, 드림볼파크 야구장, 정관아쿠아드림파크 등 기장군에는 다양한 체육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기장군체육회에서는 다양한 체육 인프라를 중심으로 군민들에게 우수한 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Q 기장군체육회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행복을 품은 도시 미래를 여는 기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활력소를 만들고 있는 기장군체육회는 직원 9명, 임원 26명과 함께 30개 종목단체, 258개 클럽, 11,0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 기장군 다양한 체육 인프라를 중심으로 대회가 활발히 열리는데요.

월드컵빌리지, 드림볼파크는 프로 축구·야구팀이 전지 훈련장으로 찾을 정도로 인기 있는 시설입니다. 월드컵빌리지에서는 매년 개최되는 전국유소년축구대회, 관내 초등학교 축구대회가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드림볼파크 야구장에서는 U-15 전국유소년야구대회가 진행되는데, 중등부 130여 팀이 참가하며, 꿈나무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Q 기장군체육회는 기장군민권기대회, 기장군 초등학교 축구대회(현 19회 진행), 기장군 배드민턴 여성부대회(현 8회 진행) 등 다양한 대회를 개최하는데요.

기장군을 대표하는 대회가 아주 많습니다. 기장군민권기대회, 기장군 초등학교 축구대회, 기장군수배 배드민턴대회, 기장군 배드민턴 여성부대회, 기장군 협회장기 유소년 배드민턴대회,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 기장군수배 그라운드골프대회, 기장군 게이트볼협회 친선대회, 기장군수배 태권도대회,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기장군수배 씨름대회, 전국댄스스포츠경기대회, 기장군수배 청소년 야구대회, U-15 전국유소년 야구대회, 기장군체육인대축전, 종목별 협회장기 등이 있죠. 그중 특히 미역·다시마배 전국 배구대회는 매년 기장군에서 개최 중이며, 대회 접수 10분 만에 마감될 만큼 명품대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Q 기장군체육회는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 발전을 위한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종합운동장을 올해 실시설계 예정이



며, 전천후 게이트볼장과 실내체육관도 올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체육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클럽 등록을 통한 선수 기량 향상과 훈련 시 체육시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Q 기장군은 우주군과 자매도시로 다양한 교류가 활발한데요. 이 가운데 기장군체육회와 우주군체육회 간에는 어떤 체육 교류가 있었나요?

매년 우주군체육회와 1박 2일간 약 250명의 생활체육인들 간 교류 시간을 갖습니다. 작년에는 우주군에서 축구, 족구,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 총 7종목 교류를 했고 올해는 기장군 관내에서 교류를 가질 예정입니다. 자매도시 간의 상호교류 방문으로 영호남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스포츠를 통해 지역 문화교류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Q 앞으로 기장군체육회의 운영 방향과 사업 계획은 무엇 인가요?

통합체육회 위상에 맞는 사업, 생활체육 회원단체 운영의 안정을 위해 임·직원 워크숍과 교육을 통해 발전적 단계로 거듭나가길 기대하며, 올해 지역인재육성프로그램 신설을 통해 장학금 전달과 격려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부산광역시기장군체육회는 군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한 가지씩의 취미와 여가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생활체육 발전 및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팡팡 심장을 울리는 스쿼시



스쿼시(SQUASH)란?

가로 6.4m, 세로 9.75m, 전면 벽 4.57m, 후면 벽 2.13m의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코트 안에서 2명(단식) 혹은 4명(복식)의 선수가 공이 전면 벽에 이르도록 교대로 라켓을 치는 경기다. 스쿼시는 분당 15kcal 이상 소모돼 다른 운동에 비해 월등한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다.

스쿼시동호회 '드라이브'

팡팡, 꽃망울이 하나둘 피어나는 봄.
팡팡, 심장박동을 뛰게 하는 스쿼시를 즐겨보자.
스쿼시동호회 드라이브와 함께라면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몸을 활기로 가득 채울 수 있을 것이다.



‘드라이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금정구 부곡동에 한 피트니스센터가 있는데, 이곳은 공인 스쿼시코트가 갖춰져 있어 많은 스쿼시 동호인들이 찾아옵니다. 2015년 당시 스쿼시를 치던 사람들과 마음이 맞아 동호회를 창단하면 좋겠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스쿼시 동작 중 드라이브가 있어, 동호회 이름이 ‘드라이브’가 되었고요, 처음 4명을 시작으로 현재는 20대 후반부터 60대까지 20여 명의 동호회원이 함께 스쿼시를 즐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호회원분들 중 자녀가 선수 생활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스쿼시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중독성이 강한 운동이에요. (웃음) 특히 라켓으로 공을 때려 벽면에 맞을 때 ‘팡!’하는 소리를 들으면 에너지가 발산되는데,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에도 적합하고, 파워풀한 운동이라서 활력이 절로 올라오죠.

20~30대의 젊은 세대들이 스쿼시를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방송에 소개되는 걸 보고 많이들 찾아오더라고요. 또 부모님이 스쿼시 치는 걸 보고 자녀들이 함께 시작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드라이브가 활동하고 있는 이곳은 스쿼시 공인 코트가 갖춰져 있는데요.

부산에서 경상대, 부경대, 동서대를 포함해 사설 시설 중 금정구 부곡동에도 스쿼시 공인 코트가 갖춰져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스쿼시 회원 수가 많을 정도로 시설이 좋아 스쿼시를 즐기기에 제격이며, 선수 출신 선생님들이 계셔서 스쿼시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의 자랑거리 중 하나로 ‘우승확률’을 꼽으셨습니다.

대회에 출전하면 거의 1~3위를 차지하죠. 이번에도 부산 대회가 있었는데, 드라이브에서 다 휩쓸었어요. 물론 동호회를 통해 친목 도모도 하지만, 드라이브는 ‘스쿼시’가 중심이기

스쿼시동호회 드라이브

- 2015년 창단
- 창원특례시장배 전국 스쿼시대회, 사하구청장배 생활체육 스쿼시 경기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다수 입상

때문에 다들 실력이 향상될 수밖에 없죠. 또한 드라이브는 다양한 세대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과 함께 운동하다 보면 그 에너지가 우승확률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의 정기 모임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정기 모임은 한 달에 한 번, 셋째 주 토요일에 진행해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함께 스쿼시를 치고, 간단히 저녁을 먹죠. 그 외에는 본인 재량껏 주중에 와서 스쿼시를 치고, 타 회원들과 함께 교류하곤 합니다. 1년에 한 번 연말 모임도 진행하는데, 작년 연말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모임을 재개했습니다. 1박 2일로 신나게 다녀왔는데, 올해는 두 번 가까이 동호회원들과 결정했습니다. (웃음)

스쿼시는 운동을 사용해야 하는 스포츠인 만큼 주의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운동의 근육을 사용하다 보니, 그냥 치다 가는 무릎이나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모든 운동이 그러하듯 몸을 충분히 풀어주는 걸 추천합니다. 저 또한 스쿼시 시작 전 스트레칭, 헬스, 웨이트 등으로 몸을 풀고 있습니다. 스쿼시를 오래도록, 아니 평생 함께하기 위해서죠.



웃음을
가져다주는
스쿼시



‘드라이브’ 유향숙 총무

저는 스쿼시 대회 출전을 앞두고 부상 당하는 일이 잦았는데요. 한 대회를 앞두고도 허리가 아팠는데, 3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부상이 없었다면 1등을 할 수 있었는데 말이죠. (웃음) 이처럼 대회에 나갔다 오면 스쿼시 실력이 더 향상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2028년 LA올림픽대회 정식 종목으로 스쿼시가 채택된 만큼, 앞으로 많은 분들이 스쿼시의 매력에 흠뻑 빠지고, 생활 체육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다른 시(市)는 시에서 운영하는 스쿼시장이 많고 단식·복식코트가 갖춰져 있는데, 부산엔 복식코트가 없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부산시민들이 스쿼시를 즐길 수 있는 코트가 많이 생겨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아무것도 모른 채 스쿼시를 시작한 것이 어느덧 13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도 회원들과 스쿼시를 치는 장면이 떠오를 정도로 스쿼시가 재밌고, 스쿼시 덕분에 일상이 활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나 라켓으로 공을 칠 때 벽에 ‘팡!’하고 맞는 소리를 들을 때면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울림이 퍼져 나옵니다. 동호회원들과 함께 스쿼시를 칠 때면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운동의 엔드르핀을 솟게 해주는 스쿼시, 모두 함께 즐겨보시길 추천합니다!

무한 질주, 무한 매력 자전거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인 자전거. 스포츠 종목으로서 자전거를 살펴보면 무수한 종목과 종목별로 다양한 자전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무궁무진한 자전거, 그 다채로운 자전거 세계에 대해 알아보자.

자전거의 역사



* 자전거가 바퀴를 이용한 형태로 등장한 것은 19세기이다. 1790년 자전거의 원형을 최초로 고안해 낸 사람은 프랑스의 콩트 드 시브락 백작인데, 그는 목재 수레바퀴와 두 개의 수직 자루를 횡목으로 연결해 자전거 형태를 만들었다. 이 이론차는 '빨리 달릴 수 있는 기계(-셀레리페르 Celerifere)'로 불리게 되었다. 이후 1839년 스코틀랜드의 맥밀란은 자전거 동력장치인 페달과 크랭크를, 1885년 영국의 제임스 스탈레이는 앞뒤 바퀴 크기가 똑같고 체인 구동식인, 오늘날 자전거 형태와 가장 유사한 현대형 자전거를 각각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전거는 실용적이면서도 효과적인 교통수단으로 발전을 거듭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대한민국 자전거

자전거 도입

우리나라에서 자전거가 언제 처음으로 사용되었는지는 확실한 기록이 없다. 1896년 서재필 박사가 독립문 공사 현장에 갈 때 처음으로 탔다는 설과 같은 해 고희성이 탔다는 설도 있다. 확실치 않으나 20세기를 전후한 개화 시대일 것으로 생각하며, 서양의 선교사나 개화파 인사들이 처음 들여왔으리라 추측한다. 이후 1898년 윤치호 선생이 하와이로부터 통타이어를 사용한 자전거를 도입해 왔다고 하며, 1950년대 후반부터 자전거가 생산되어 점차적으로 늘어났다. 자전거는 1960~1970년 사이에 실용적인 주 교통수단으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현대에 이르러 경기 및 레저용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자전거 경기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 일본으로부터 도입된 사이클경기가 처음으로 개최(1906년 4월)되었는데, 본격적인 대회로 발전된 것은 1913년 이후였다. 1920년대부터는 한국과 일본 선수들이 경기에 동시 참가하였으며, 이때 한국 선수들은 민족정신을 크게 일깨우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영화로도 개봉되었던 엄복동 선수는 이 시기에 일본 선수들은 물리치고 많은 우승을 차지하며 한민족의 의기를 북돋는 주역이 되기도 하였다.

1922년 5월에는 전국자전거대회가 개최되었고, 해방 후 조선자전거경기연맹이 발기인대회(1945)를 하고, 대한자전거경기연맹이 발족(1946) 되었으며, 세계사이클연맹에 가입(1947)되어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자료출처] 대한자전거연맹

가지각색 자전거 종목

트랙



사이클 트랙 경기장은 '벨로드롬(Velodrome)'으로 불린다. 타원형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표면은 부드럽고 매끄럽다. 트랙은 극한의 속도를 대결하는 종목인 만큼 짜릿한 사이클의 묘미를 느낄 수 있다.

스프린트, 경륜, 단체추발, 옴니엄 등

- * **스프린트**: 2명의 선수가 250m 트랙 3바퀴를 돌고, 먼저 들어오는 선수가 이김
- * **경륜**: 트랙 위에서 여러 선수가 동시에 출발해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순서대로 순위 결정

도로



사이클 도로경기는 포장된 일반 도로에서 실시되며, 경기 중 도로 코스는 선수, 수행요원, 공식 임직원 또는 관중의 안전을 위해 통제해야 한다. 도로에서 펼쳐지는 경기이다 보니, 선수가 올바른 코스를 주행하고 있는지, 현재 주행거리가 얼마인지 나타내는 표시판이 잘 갖춰져야 한다.

개인도로경기(남·여), 도로독주경기

- * **도로경기**: 자전거계의 마라톤으로 극한의 대결이 펼쳐지는 종목
- * **도로독주**: 혼자 달리는 경기로 남자 44km, 여자 22km를 가장 짧은 시간 내에 통과 시 우승

세부 종목

[자료출처] 대한자전거연맹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

트랙 경기에 사용되는 '경륜자전거'는 오로지 빨리 달리기 위해 만들어진 자전거로 브레이크가 없다.

즉, 속도를 내기 위한 것 외에는 전부 배제되어 있다. 속도 조절은 오직 선수의 다리 힘으로 페달을 돌리는 만큼 조정된다. 또한 경륜 자전거의 타이어 두께는 약 22mm밖에 되지 않는 매우 얇은 타이어를 사용하여, 주로와의 접지면을 최소화하고, 마찰을 줄이는 등 빨리 달리기 위해 고안되어 있다.

[자료출처] 부산시설공단

MTB



크로스컨트리

기복이 심한 오르막길과 내리막길 등 지형을 배경으로 폐쇄된 산림도로나 시골길이 경기장이 된다. 경기 코스는 오르막과 내리막, 평지, 직선로와 굴고리 굴고루 섞여 있어 산악자전거의 여러 가지 테크닉을 종합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BMX

산악자전거 경기 중 가장 빠른 속도를 내는 경기다. 보통 경기는 대회 마지막 날에 치러지는데, 이는 경기 중 선수가 부상 당하거나 자전거 고장으로 다른 경기에 나갈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출전자도 헬멧 및 온몸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출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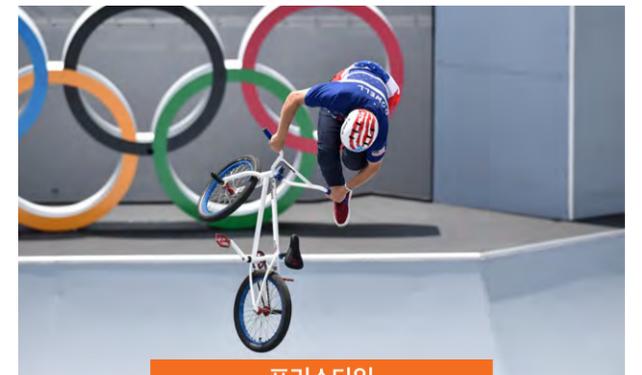
[자료출처] 한국산악자전거연맹

BMX



레이싱

BMX 레이싱은 300~400m 거리의 모글 코스를 달리는 경기로, 출발대와 모글(다양한 모양과 높이의 언덕), 3개의 코너로 경기장이 구성된다. 경기장마다 다른 디자인과 난이도가 갖춰져 스킬 넘치는 경기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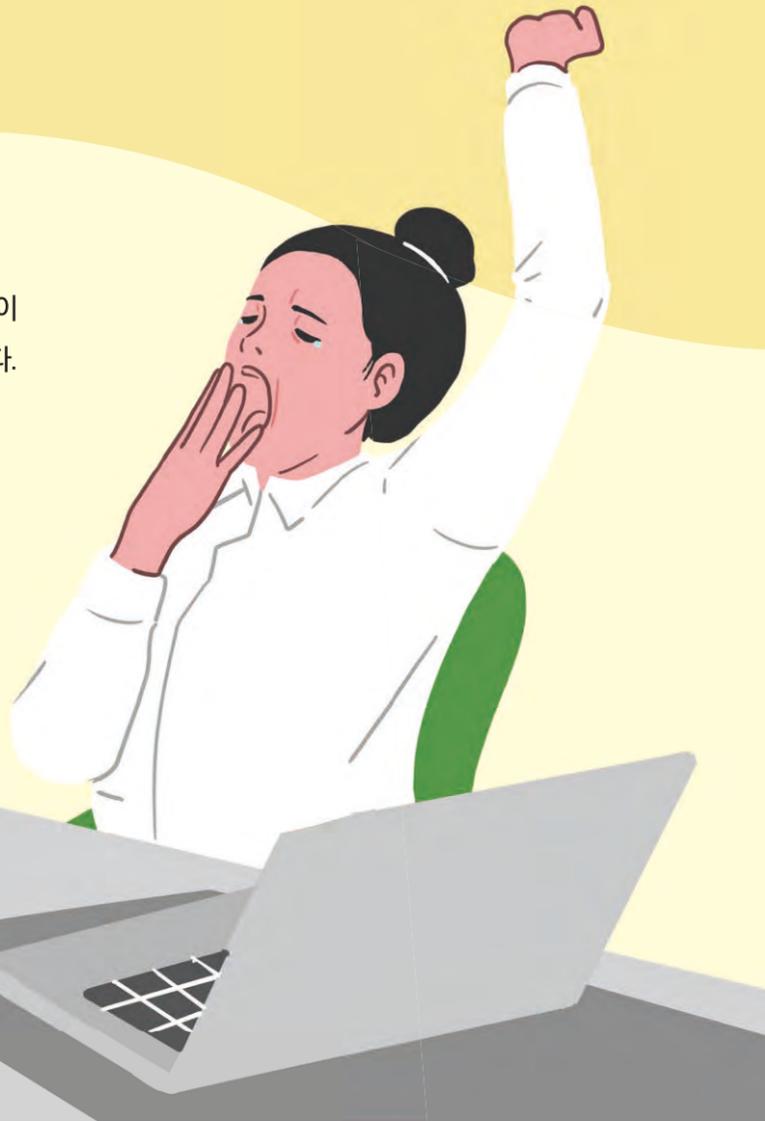
프리스타일

BMX 프리스타일은 다양한 지형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자전거를 타고 묘기를 부리는 종목이다. 거리, 공원, 숲, 진흙, 평지 등으로 경기장 영역이 다양하다.

[자료출처] 한국BMX연맹

춘곤증 물리치는 체조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날씨가 포근해지는 봄이 왔다. 계절이 바뀌는 몇 주 동안은 신체리듬의 부조화로 몸이 나른해지거나 졸리고 피곤한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건강하게 봄을 만끽하기 위해 내 몸을 깨우는 체조를 함께 해보자.



춘곤증은 환경 변화에 따른 몸의 적응 과정

춘곤증은 우리 몸이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계절의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생긴다.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는 입학이나 취업, 근무지 이전 등과 같은 환경의 변화도 춘곤증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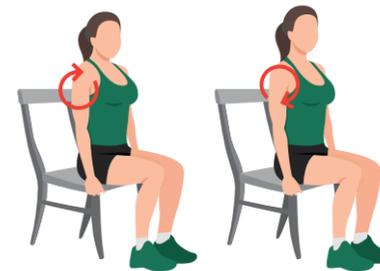
춘곤증을 물리치기 위해 무리하게 일을 하거나 갑작스러운 야외 활동을 하면 낮 동안 졸릴 수 있다. 특히 점심 식사 후에는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혈액이 몰리며, 머리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지고, 뇌 활동성이 약해져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런 몸의 변화도 1~2주 정도 계절 변화에 적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회복된다. 만약 낮에 너무 졸리면 15~30분가량 낮잠으로 회복할 수 있다. 낮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라면, 춘곤증에 도움이 되는 체조로 몸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① 앉은 자세로 만세하기



의자에 앉아 두 팔을 하늘로 뻗는다. 이때 다리도 쭉 편다.

② 어깨 앞뒤로 돌려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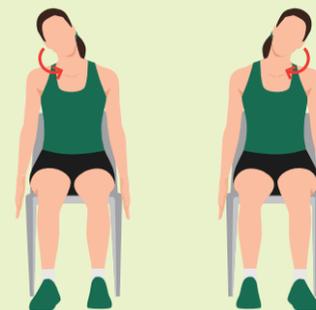
허리를 곧추 세운 뒤 팔을 늘어뜨린다. 어깨를 앞으로 천천히 돌렸다가, 뒤로도 천천히 돌린다.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주의!

③ 목덜미 주무르기



목 뒤에 두 손을 깎지 끼고 마주한 손바닥 부위로 목덜미를 주무른다.

④ 고개 돌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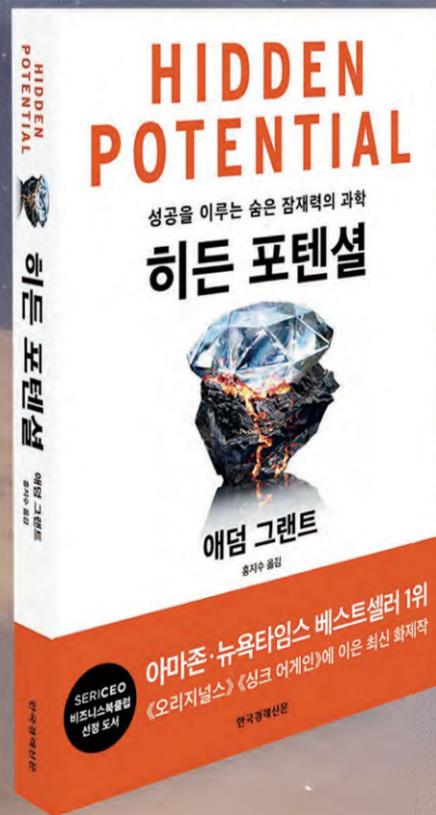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 목을 왼쪽으로 3회, 오른쪽으로 3회 천천히 돌린다.

⑤ 머리 두드려 주기



손을 펴고, 손가락을 살짝 구부린 후 손가락에 힘을 주고 머리를 골고루 두드린다.

성공을 이루는 숨은 잠재력의 과학



「히든 포텐셜」

저자 애덤 그랜트 / 출판사 한국경제신문



**불편을 마주하고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불완전주의자가 되라!
우리 안에 숨은 가능성을 되찾고 키우는 위대하고도 놀라운 방법들
누구나 위대한 성취를 올릴 수 있는 잠재력 훈련이 시작된다.**

스테판 커리는 NBA 선수의 아들이지만, 농구 명문 대학교들 가운데 단 하나로부터도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 고등학교 졸업 당시 그는 대단히 과소평가되었다. 별 다섯 개 척도상으로 보면 그는 별 3개 정도의 수준이었다. 졸업반에 진학하기 전 여름, 데이비스 칼리지의 코치가 커리가 경기하는 모습을 참관하러 왔다. “그는 형편없었다. 공을 관중석에 던지고, 건네받은 공을 떨어뜨리고, 자기 발등에 드리블하고, 슛도 빚나 갔다.”라고 그 코치는 회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그러나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단 한 번도 그는 심판 탕을 하거나 자기 팀원 탕을 하지 않았다. 벤치에 앉아서도 그는 한결같이 자기 팀을 응원했고 기죽지 않았다. 그의 그런 인상이 잊히지 않았다.”

타고난 재능은 기회와 환경, 동기부여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일 뿐, 누구나 자신 안에 ‘숨은 잠재력’을 발휘하여 더 높이, 더 멀리 날 수 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기브 앤 테이크》, 《오리지널스》, 《싱크 어게인》의 저자이자 와튼스쿨 조직심리학과 최연소 종신교수인 애덤 그랜트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예상치 못한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히든 포텐셜》을 펴냈다.

우리는 타고난 재능에만 주목하고 집중한 나머지 뒤늦게 발견되고 길러질 수 있는 숨은 잠재력에 대해서는 쉽게 간과한다. 그리고 이러한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해 과소평가되고 묻혀버린 이들에 대해 개인의 능력 부족과 노력의 실패라고 단정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저자는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된 출발과 성과 중심의 잣대가 실제로는 균등하지 않은 기회와 체제에서부터 비롯되었음을 밝히고, 그것을 타계해 나갈 수 있는 진짜 숨은 잠재력을 가진 인재를 발굴하고 키우는 방안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지침과 방법을 알려준다.

이 책의 구성은 총 세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1부에서는 우리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멀리 도약하게 만드는 ‘품성 기량’에 대해 알아본다. 품성 기량은 후천적으로 학습 가능한 행동 유형으로, 타고난 자질이나 원칙을 지니는 상태에서 벗어나 주도력, 친화력, 자제력, 결의처럼 본인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갈고 닦아 키워나갈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2부에서는 동기를 유발하는 ‘임시 구조물’을 만들어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한다. 강한 품성 기량을 갖췄다고 해도, 심신이 지치거나 회의가 생기거나 정체기를 겪는 상황에서 자유로운 이는 없다. 좋은 결과와 추진력을 유지하려면 뒤로 물러서서 다른 길을 개척해야 할 수도 있어야 한다. 마지막 3부에서는 과소평가되어온 이들에게 열린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길을 모색한다.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가 열어줘야 할 기회의 문이 부당하게 닫혀 있는 경우는 많다. 그렇다면 그 문을 직접 만들어야 한다. 학교, 팀, 조직에서 흙 속의 진주, 다이아몬드 원석 같은 숨은 인재를 발굴하도록 재설계하는 방법들을 보여준다.

BSC SPORTS NEWS

Busan Sports Council

2024년도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원단체 직무연수



구·군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실무자 등 130여 명 참가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2월 28일(수) 부산광역시체육회관에서 구·군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 실무자 등 1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4년도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원단체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이날 직무연수에서 4대 폭력 예방 전문강사 집체교육과 행정실무 교육이 실시됐다. 행정 실무능력 향상과 스포츠폭력 근절을 위해 매년 직무연수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부산 구·군체육회와 각 종목별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능력 향상과 투명한 보조금 집행, 스포츠 폭력 근절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부산시민의 행복과 건강한 일상을 위해 체육회와 회원단체가 같이 힘써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올해는 2025년도 제106회 부산 전국체육대회의 성공 개최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한 해이며, 이를 위한 현안업무와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체육회-구·군체육회-회원종목단체-대한체육회,

지역체육 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



지역체육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자리 마련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와 부산광역시체육회(회장 장인화)는 지난 3월 5일(화) 구·군체육회장, 종목단체 회장과 회원단체 임원을 초청하여 지역체육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대한체육회에서는 ▲지방체육회 재정 정률 지원 ▲상장기업의 학교운동부 지원 의무화 ▲학교체육시설 개방 확대 필요성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업무조정 ▲국가스포츠위원회 설립 추진 등 체육계 중점과제를 설명하였다.

부산광역시체육회와 회원단체에서는 ▲전국체육대회 참가 선수 생활체육대회 참가 제한 해제 ▲스포츠클럽 소속 학생 선수 활동제한 완화 ▲시·도체육회 임원 연임 제한 폐지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공모 시기 변경 ▲지방체육단체 안정적 운영 위한 행정요원 인건비 교부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건의를 하였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올해는 25년 만에 개최하는 부산 전국체육대회의 직전 연도로서 부산광역시체육회 역사상 굉장히 의미있고 중요한 해로, 대한체육회와 부산광역시체육회, 구·군체육회, 종목단체 모두가 멋진 파트너십을 발휘하여, 힘과 뜻을 모아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고 하였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지역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지역체육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이사회 개최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2월 15일(목) 부산광역시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제50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2023년 사업 실적 및 결산, 부산광역시체육회의 각종 규정개정 등 8개 안건에 대해 의결하였다. 또한 2024년 사업계획과 제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참가계획을 보고하며 부산대표팀 선수들이 열심히 준비한 만큼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두 한마음으로 응원하였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2월 21일(수) 부산광역시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2024년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23년 정기대의원총회 결과 등을 보고하였고, 2023년 사업실적 및 결산, 부산광역시체육회 정관 일부개정 등을 의결했다. 이날 있었던 감사보고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부산광역시체육회의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노력과 전국체육대회 종합 7위 등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을 통해 부산체육의 위상을 제고했음을 강조했다. 더불어 2025년 부산에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됨에 따라 예산확보, 홍보활동 등 선제적으로 앞장서서 준비에 총력을 다해주길 당부하였다.



2024 부산시민자전거대회

저탄소 무동력 이동 수단인 자전거를 통해 1인 1스포츠 생활체육 천국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2024 부산시민자전거대회가 개최된다.

대회개요

기 간	2024년 4월 6일(토) 09:00~14:00	대 상	부산시민 및 자전거 동호인 누구나
개회식	▶ 09:30 / 화명생태공원민속놀이마당	주 최	부산광역시체육회
장 소	화명생태공원 및 4대강 국토종주 낙동강자전거길	주 관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자전거연맹

대회코스

24km코스

화명생태공원 → 호포다리 → 물금 취수장(반환점) → 호포다리 → 화명생태공원

45km코스

화명생태공원 → 호포다리 → 물금 취수장 → 가야진사(반환점) → 물금 취수장 → 호포다리 → 화명생태공원




부산광역시체육회 카카오톡채널 개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부산체육 소식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소통 공간인 카카오톡채널을 개설 운영한다. 카카오톡에서 '부산광역시체육회'를 검색하거나 오른쪽 QR코드를 찍어 채널을 추가하면 체육회의 다양하고 유용한 소식을 만나볼 수 있다.



구군체육회 소식



중구체육회

2024년 제18차 부산광역시중구체육회 이사회

중구체육회는 2월 16일(금), 2024 제18차 중구체육회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2024년 중구체육회 임·직원 현황보고 등 보고사항 2건과 2024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등 심의·의결사항 5건,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4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기타 토의시간을 활용하여 중구체육의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회의를 성황리에 마쳤다.



서구체육회

2024년 부산광역시서구체육회 정기대의원 총회

서구체육회는 2월 22일(목) 서구청 서관 재난상황실에서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였다. 서구체육회장 및 대의원 등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1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본회 정관 일부 개정 및 기타 토의 시간에는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등 서구체육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부산진구체육회

2024년도 제1차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체육회 이사회

2월 16일(금) 서면 한 식당에서 2024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이사회는 2024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체육회 유도회 준회원단체 가입 승인(안), 2024년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계획(안) 총 3건의 심의안건이 의결됐으며,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체육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가 되었다.



동래구체육회

2024년도 부산광역시동래구체육회 정기이사회

2월 19일(월) 동래구체육회 2024년도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이사회에는 2023년도 2차 이사회 결과 등 4건을 보고하였으며,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안) 등 7건의 심의·안건을 의결하였다. 기타 토의 시간에는 동래구 체육이 새로운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정길호 회장은 체육회 모든 임원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동구체육회

2024년도 부산광역시동구체육회 제1차 정기이사회

2월 20일(화) 동구체육회 제1차 정기이사회를 동구청대회의실에서 진행하였다. 황현선 동구체육회장의 힘찬 인사말을 시작으로 진행된 이사회는 보고사항으로 전차회의 요약보고, 총 3개의 안건을 원안승인 하였다. 임원 40여 명이 참석한 2024년 첫 이사회인 만큼 참석한 임원진 한 명 한 명을 소개하는 등 귀한 시간을 가졌다.



영도구체육회

2024년 제1차 부산광역시영도구체육회 이사회

영도구체육회는 2월 16일(금) 영도구청 대회의실에서 영도구체육회장,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차 부산광역시영도구체육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새로운 신임 이사 위촉장 수여와 3건의 보고사항 및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한영익 회장은 "우리 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항상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임원분들 대단히 감사하고, 올 한 해 성공적인 체육행사를 위해 임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남구체육회

2024년도 부산광역시남구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남구체육회는 2월 15일(목) 2024년도 부산광역시남구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 보고사항으로는 감사보고, 2023년도 남구체육회 이사회비 결산 보고,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남구체육회 회원단체 규정 개정, 남구체육회 사무실 이전 보고, 남구체육회 임원 변동을 보고하였다. 심의안건으로는 2023년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안), 남구체육회 정관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며 회의를 마무리하였다.

2024 생활체육 "무료" 교실 참가자 모집

□ 주최·주관 : 부산광역시북구체육회 □ 모집기간 : 2024. 2. 14 ~ (선착순 모집)
□ 문의 ☎ 334-7330

구분	운영 장소	모집인원	운영 일시
복싱 다이어트	우리동네 BOXING GYM	20명	3. 4 ~ 4. 30 (월, 수, 금)
			11:00 ~ 11:50
수영	북구국민체육센터	30명	3. 4 ~ 4. 30 (월, 수, 금)
			13:00 ~ 13:50

북구체육회

2024년도 생활체육교실 운영

북구체육회는 3월 4일(월)부터 4월 30일(화)까지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종목은 복싱과 수영 두 종목으로 구성하였다. 이번 생활체육교실을 통해 북구 구민들이 생활체육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첫걸음이 되었으면 한다.

* [복싱] 다이어트 중점 수업 - 월, 수, 금 / 11:00~11:50 / 20명 / 구남역 우리동네복싱팀

* [수영] 신청자 수준 맞춤 수업 - 월, 수, 금 / 13:00~13:50 / 30명 / 북구국민체육센터

구군체육회 소식



해운대구체육회

2024년도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체육회 정기대의원 총회

2월 19일(월) 2024년도 정기대의원총회가 개최되었다. 정성철 해운대구체육회장을 비롯하여 각 종목 협회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안건으로 2023년도 정기대의원총회 결과, 감사보고,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 등 6건을 보고하고, 지난해 2023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안) 등 총 4건의 심의안건을 원안가결했다. 또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체육회에 관한 기타 토의를 진행하며 성황리에 총회를 마무리하였다.



사하구체육회

2024년 제1차 이사회, 정기대의원 총회

사하구체육회는 2월 16일(금)과 23일(금)에 각각 2024년 제1차 이사회, 정기대의원 총회를 진행했다. 이사회에서는 새로 부임하는 부회장, 이사 위촉장 수여 및 배지 전달식을 시작으로 보고사항, 심의사항 의견을 회의했으며 체육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이어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새로 부임한 임원보고 및 회의를 진행했으며 각 종목 회원단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연제구체육회

2024년 부산광역시연제구체육회 이사회, 정기대의원 총회

연제구체육회는 2월 21일(수)과 23일(금)에 2024년 제1차 이사회, 정기대의원 총회를 각각 진행했다. 이사회에서는 연제구체육회 임원 선임 현황 보고, 2023년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 보고,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연제구체육회 인정단체 가입 승인(안)을,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연제구체육회 임원 선임 현황 보고, 2024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보고, 2023년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안), 연제구체육회 임원 선임(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수영구체육회

2024년 부산광역시수영구체육회 이사회, 정기대의원 총회

수영구체육회는 2월 15일(목)과 22일(목)에 2024년 제1차 이사회,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 이사회에서는 2023년도 경과 및 사업결과,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하였으며,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및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계획(안)에 대해 심의하였다. 대의원총회는 2023년도 경과 및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보고하며 2023년도 사업결과 및 세입·세출 결산(안) 및 부산광역시수영구체육회 임원 선임(안)에 대해 심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정구체육회

부산광역시금정구체육회 제17차 이사회

금정구체육회는 2월 21일(수) 제17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1부 행사는 2023년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 체육회 분과위원회 구성안 등 4건에 대하여 보고하고,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등 8개의 안에 대해 의결을 하였다. 2부 행사로는 만찬 간담회를 가지며 2024년 체육회가 나아갈 방향과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성공적으로 이사회를 마무리하였다.



강서구체육회

2024년 부산광역시강서구체육회 정기이사회, 정기대의원 총회

강서구체육회는 1월 17일(수)과 24일(수)에 각각 2024년 정기이사회, 정기대의원 총회를 진행했다. 정기이사회에서는 보고사항(2023년도 추진사업 및 세입·세출 결산 외 4건) 및 의결안건(2024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외 4건)을,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보고사항(2023년 회의록 외 4건) 및 2023년도 추진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강서구체육회 정회원단체(3개 종목) 강등 승인의 건 2건을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다.



사상구체육회

2024년 제1회 사상구 유도회장기 유도대회

사상구체육회는 2월 3일(토) 사직 양정모 체육관에서 제1회 사상구 유도회장기 유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올해로 첫 회를 맞는 유도대회는 사상구 유도협회가 더욱 발전하여 사상 체육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승부보다는 상호 간에 친목과 우정을 다지고 경기 후에는 축하와 격려를 나누며 유종의 미를 거두는 현장을 느낄 수 있었다.



기장군체육회

2024년 정기대의원 총회

기장군체육회는 2월 22일(목)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였다. 18명의 대의원이 참석하여 부산광역시기장군체육회 임원 현황보고와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을 보고하였고, 심의안건으로 2023년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 처리와 부산광역시기장군체육회 임원 선임의 건을 올려 부회장 선임을 완료하였다.

부산국민체육센터

제21회 꿈나무체능단 졸업식



2월 23일 부산국민체육센터 체육관에서 꿈나무체능단 7세 졸업생 18명 5, 6세 수료생 31명을 대상으로 제21회 졸업 및 수료식을 개최했다. 졸업 및 수료생들은 정들었던 체능단을 마무리 하며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체능단에서의 즐거웠던 시간을 되돌아 보며 재미난 기억을 회상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며 미래를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부산국민체육센터장은 우리 아이들 그리고 모든 학부모님들께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는 축사를 전했다. 체능단원들은 즐거웠던 추억을 뒤로하고 더 넓은 세상으로 한 발 내딛는 순간이었다.

북구국민체육센터

2024 생활체육 무료(수영) 교실 개강

+ 모집 안내

- 신청 기간 2024. 02. 14 ~ 선착순 모집
- 운영 기간 2024. 03. 04 - 04. 30
- 신청 대상 북구 주민(성인) 누구나
- 수 강 료 무료 (수업별 준비물 본인 부담)
- 신청 방법 유선 접수 : 부산광역시북구체육회 ☎ 334-7330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 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명	장 소	시 간	요 일	모집인원
복싱다이아트	우리동네 BOXING GYM	11:00~11:50	월,수,금	20명
수영(초급)	북구국민체육센터	13:00~13:50	월,수,금	30명

- ※ 2023 교실 참가자 제외 (대기자 접수 가능)
- ※ 3회 이상 불참 시 대기자에게 교실 참여 기회 제공
- ※ 건강상태에 따라 지도 강사 판단 후 수업이 불가 할 수 있음
- ※ 모집 인원이 정원의 과반수 이하일 때 폐강될 수 있음

북구국민체육센터는 부산광역시북구체육회에서 운영하는 2024 생활체육 무료(수영) 교실이 북구 주민(성인)을 대상으로 개강 됐다. 수영(초급) 교실은 2월 14일부터 선착순으로 북구체육회에서 유선으로 접수를 받았으며, 3월 4일부터 4월 30일(월, 수, 금) 13시부터 13시 50분까지 2개월간 진행된다. 직장에서 쌓인 스트레스 해소 및 주부 회원들에게 잃어버렸던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활력 등 건강을 찾게 해주는 귀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서구국민체육센터

3월 신규 프로그램 개강



강서구국민체육센터는 3월부터 16, 17시 성인 수영 강습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게 된다. 기존 어린이 수업 시간대로 아이들과 같은 시간에 수영 강습을 원하는 학부모에게는 좋은 소식으로 아이들과 함께 수영장에 오는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센터에서는 앞으로도 회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프로그램 운영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영도국민체육센터

영도국민체육센터 노후 냉난방기 교체 계획



영도국민체육센터 냉난방기의 노후로 잦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위탁기관인 영도구는 3월 노후 냉난방기 교체 사업을 추진한다. 영도국민체육센터는 2009년 개관 당시 설치된 냉난방기를 사용해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에 불편함이 뒤따랐다. 이에 노후 냉난방기를 적기에 교체하여, 폭염에 대비 쾌적하고 안전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영도국민체육센터 냉난방기 교체 공사는 3월 22일(금)부터 3월 31일(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해당기간 센터는 임시 휴관할 예정이다. 이번 냉난방기 교체공사로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전기에너지 소비 절감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실내빙상장

부산빙상동호인연합회 재능기부 봉사



부산실내빙상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산빙상동호인연합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재능기부 봉사차원에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 이용객들이 많은 시간대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빙상장 안전요원 보조로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참여하는 동호회 회원들 덕분에 혼잡한 시간대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현격히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부산광역시바둑협회

제12회 부산여성바둑연맹회장배 바둑대회



2월 18일 부산여성바둑연맹회장배 바둑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제12회 여성바둑대회로써 부산여성바둑연맹에서 주최하는 행사다.

부산여성바둑연맹은 매년 대회를 개최하여 회원들 간에 소통과 교류를 통하여 기력 향상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부산여성바둑연맹 신화자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대회의 포문을 열었다. 이날 대회장을 방문한 부산광역시바둑협회 임재경 회장은 "여성회원분들의 바둑에 대한 열정을 보고 놀랐다, 앞으로 더더욱 기량을 향상하여 부산여성바둑연맹 회원들이 최고의 기량을 갖추어 많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다."고 전하였다.

이번 대회는 부산여성바둑연맹 회원 28명이 참석, 스위스리그로 4명씩 한 조로 세 판을 두어서 총 승수가 많은 팀이 우승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우승 1팀, 준우승 2팀, 4위 2팀, 장려상 2팀에게 시상하였다.

부산여성바둑연맹은 신화자 회장과 김향희 부회장, 송영옥 부회장, 이수경 총무가 취임한 후로 많은 여성회원들을 모집하였다.

신화자 회장은 "바둑에 대해 작은 관심이 있으시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니 20~30대의 젊은 여성분들이 바둑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길 바란다."고 이야기하며 "다양한 연령대가 바둑이라는 취미를 통해서 소통하며,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하길 바란다."고 전하였다.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 2024 김천전국초등학교 테니스대회 출전



부산거점스포츠클럽에서 2024 김천전국초등학교 테니스대회에 출전하였다. 김경원 테니스 감독이 인솔하여 10명의 선수가 출전하였다.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돌아온 우리 선수들에게 뜨거운 박수와 격려를 전하며 다가오는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각종 전국대회에도 잘 준비한 선수들이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 목표로 한 성과를 달성하길 바란다.

[대회 성적] 천시후 12세부 컨설레이션 개인단식 1위
김서진 10세부 컨설레이션 개인단식 1위
천시은 8세부 개인복식 2위, 개인단식 2위

부산영도구스포츠클럽

2024년 청소년 스쿼시 주말리그 참가



부산영도구스포츠클럽은 1월 20일(토)부터 2월 17일(토)까지 진행된 2024년 청소년 스쿼시 주말리그에 참가하였다. 12세 이하 남자·여자부, 15세 이하 남자·여자부, 18세 이하 남자·여자부로 나뉘어 진행된 대회는 약 50여 명이 참여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올바른 장례문화의 시작

(주)시민장례식장

(주)시민장례식장은 장례문화의 부조리한 관행 및 관습을 타파하고 '정직한 경영, 투명한 운영, 친절한 서비스'를 목표로 한 운영을 통하여 올바른 장례문화를 선도해가고 있습니다.



꽃장식 분향소 접객실 내실 상주휴게실 상담실 주차장 하늘정원

☑ 계열사 장례식장

- (주)시민장례식장 051)636-4444
Simin Funeral Hall
- 부산백병원 장례식장 051)896-4444
BUSAN PAIK HOSPITAL FUNERAL HALL
-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 051)893-4444
HAKUNDAE PAIK HOSPITAL FUNERAL HALL

☑ 장례전문인력

전문 장례지도사
전문 이송단
인력 도우미
장례관련 일체(개장등)

소중한 분이셨다면 특별한 곳에 모셔야 합니다.

* 24시간 무료상담 및 부산관내 무료이송*

(주)시민장례식장 | 24시간 무료상담 | 051-636-4444
SIMIN FUNERAL HALL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31 (주)시민장례식장

시공능력평가
2023년 전국 31위
부울경 1위 건설기업

동원개발그룹은 주거문화, 금융, 레저산업 및 수산업을 선도하고 교육보국을 실천하는 신용의 기업입니다.



Since 1975년 | 전국 167차 사업장 87,000세대 공급

49년 쉬지 않고 달려온 신용제일의 기업 동원개발! 동원개발이 지으면 명품이 됩니다!



SKY.V 부산북항

SKY.V 센텀시티

SKY.V 우정역신

부산 냉정역 비스타동원 분양 문의 051)256-4500

2월 29일 OPEN

울산 무거 비스타동원 분양 문의 052)922-5000

4월 OPEN 예정

시공능력평가 2023년 전국 31위, 부울경 1위! 초우량 1군 종합건설기업!

AAA -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용등급 AAA
- 나이스디앤비 신용등급 AA+
- 건설경제조합 신용등급 AA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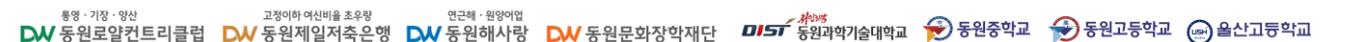
- 전국 87,000여 세대 공급
- 부채비율 39.8% 단년한 1군 건설사 (2022년)
- 48년 연속 흑자기업
- 아시아 200대 유망기업
- 코스닥상장 우량기업 (1994년 상장)
- 국내 최초 주택사업분야 금탑산업훈장 (1995년)

DW 동원개발

SKY.V | 비스타동원 | 동원로얄듀크 | 동원시티비스타

대표이사 회장 장복만

동원개발그룹



척추·관절



| 척추·관절 | 척추측만증 | 척추 재수술 | 스포츠재활
| 통증·도수치료 | 뇌·신경질환 | 양방향척추내시경

☎ 대표전화 | 1544-7582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로4
광안(박원욱병원) 5번 출구 앞

박원욱병원

www.parkspine.co.kr

부산지역 전문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과학지원 서비스

부산 스포츠과학센터는 국가대표 선수에게 한정되었던 스포츠과학지원 시스템을 적용하여 부산지역 전문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개인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부산광역시 선수들의
꿈을 향한 도전!

부산스포츠과학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체력측정 및 분석

- 기초체력
신체조성 및 기초체력측정
- 전문체력
운동부하검사(호흡가스 분석)
젯산분석, 등속성 근관절 기능
무산소성 운동능력 평가

생체역학측정 및 분석

- 영상분석(자세분석/전술 및 기술 특성) 및 족저압분석
- 근전도를 통한 근육동원 패턴 분석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 선수 데이터관리 시스템 운영
- 체력수준 진단 및 개인별 운동처방 제공
- 개인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제공

스포츠과학교실

- 스포츠과학 이론의 이해도 제고 및 현장적용 교육
- 스포츠윤리, 도핑, 부상예방 및 진로 교육
- 스포츠 영양 교육

스포츠심리지원

- 심리프로파일 분석, 심리훈련 및 상담

찾아가는 현장밀착지원

- 체력강화 및 운동기술 전문가 현장지원
-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심리, 정신력 강화 프로그램 제공
- 훈련영상 촬영 및 종목별 필드테스트 제공

스포츠헬스케어센터 운영

- 부상예방 회복 및 경기력 향상 훈련 프로그램 제공
- 전문 트레이너와 1:1 훈련 진행

NO 페이퍼 ON 스마트

“종이는 줄이고, 생활은 스마트하게”

도시가스 고지서, 카톡으로 간편하게!
지구를 살리는 스마트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지구를 살리는 **톡톡**한 생활

kakao TALK 한번만 가입하시면 별도의 로그인 없이 사용 가능!

 카카오톡 친구 검색창에
부산도시가스 검색

 부산도시가스
도시가스 특 가입하기

 비대면으로 편리한 셀프서비스
조회/납부/이시방문신청

QR코드로 사용하기

☑️ 스마트폰 카메라 또는 QR코드 스캐너로 비춰주세요

☑️ 가입/관리 클릭



이사 후 도시가스 사용계약도 **셀프로 스마트하게!!**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기본을 지키는 **바른 금융**
디지털로 열어가는 **새로운 금융**
모두의 내일을 키워가는 **함께하는 금융**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부산은행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K 부산은행**